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21년 6월 2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24.(목)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배포일시 2021. 6. 23.(수)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과장 이종석 과장(044-203-4370) 담 당 자 최태준 사무관(044-203-4371)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발족한다

- 10대 언종별「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결성.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 ▶ (연대) 민간 주도로 10대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향 수립 '22년까지 100개 이상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 (센터) 디지털 전환 공통기술, 표준, 성능 시험장 제공 지역, 산단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업·기술 연계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란?

- ▶ 10대 업종별로 관련 협·단체, 기관·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전화 '연대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 생산 최적화, 제품 지능화, 서비스 고도화, 신BM 융복합화 분야에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향 수립, ^❷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 발굴된 과제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표준 마련,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대표 선도사례 확산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란?(1800-5233, www.idx.or.kr)

- ▶ 산업지능화 협회, KPC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에 생소한 기업 대상으로 협업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 구축
- ▶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공통기술·표준 및 DX 성능시험장 제공
- ▶ 지역, 산단 등에 직접 찾아가서 DX 수준 진단 및 상담 지원, 디 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업·기술 연계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6월 24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iDX 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결성 및 협업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1.6.24(목) 10:00~11:00 / 서울 콘래드 호텔(여의도)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산업지능화협회장, 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산단공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등 50여명
 - * 산업 디지털 연대 참여기업 100여개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온라인 참석
 - (주요 내용)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 협업지원센터 개소식
- □ 금번 행사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20.8월, 경제중대본)」과 이를 구체화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21.4월,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 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성숙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성장과 결합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 디지털 전환 전략, 인력·자금 등이 부족하여 **개별 기업 혼자 힘**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 산업 디지털 전환 수준(500개 기업 설문조사, 산업부·KPC, '21.2월)
 - 업종 평균 도입 단계, 선도 30% 정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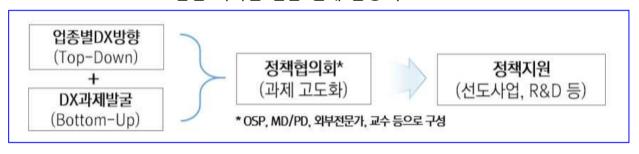
< 산업 DX 단계모델(KPC) >

	① DX준비	② DX도입) ③ DX정착	▶④ DX확산	> ⑤ DX고도화
전략	DX전략 미도입	DX전략 수립	DX전략 개선	DX전략 혐업	DX전략 혁신
활동 범위	기업 내	기업 내 (일부)	기업 내 (전사)	업종 내 기업 간	업종 간
활동 유형	수동적 적용 (테스트)	주도적 적용 (일부)	주도적 적용 (전사)	공통과제 해결 (기업간 협업)	新가치 창출 (업종간 융복합)

이에, 업종별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간 협업 촉진을 위한 공통기술·표준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할 계획임

-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는 업종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 연계·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 미래차, 가전·전자, 조선, 기계 등 **10대 업종*별로 170여개**의 관련 협·단체, 기관·기업, 대학 등 민간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구축한 것임
 - * ('20년 6개 업종) 미래차, 가전·전자, 건강관리, 조선, 유통, 철강 → ('21년 4개 업종 추가) 기계·로봇, 뿌리소재, 에너지, 섬유화학
 - ¹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향을 수립하고, ²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 하여 디지털 전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임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운영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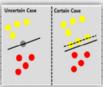
- 작년 6개 업종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활동을 통해 밸류체인 선도 디지털 전환 과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 * 가치사슬 디지털화 선도 연구개발(R&D) 사업 : 6개 과제, '21~'23년, 총 약 279억 투자
 - 특히, 조선3사, 기자재 업체, 해운사 등이 참여하여 중국 등 추격심화, 선박제조 부가가치 저하 등 조선 산업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선박 운항, 관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부품 예지 보전, 원격 최적 운항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할 것임
- 올해에도 주기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60개 이상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10여개의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토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임

-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전략, 기업·기술, 인력 등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에 따라 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할 종합 지원센터로서 구축된 것임
 - 동 센터를 통해 앞서 구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성공사업을 발굴하여 디지털 전환 박람회 등을 통한 벤치마킹 사례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 이 기업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 아키텍쳐, 인 공지능 모듈, 데이터 보안 등의 [●]공통 기술,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등 관련 표준을 개발·제공하고,
 - 인공지능 기반으로 3D 프린팅, 영상인식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 현장 문제의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❷성능 시험장도 지원할 계획임

< 성능시험장 사업 사례 >

*(예시)액티브 학습 기술을 이용한 물류창고 위치정보 지능화 성능시험장













지능형창고했다던데 - 우리도 될까? - 창고데이터로 테스트해보자 - OK - 우리도 가능하겠네~

- 또한, 지역, 산단 등에 직접 찾아가는 ^❸산업DX 카라반과 산업 디지털 전환 ^⁴상담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 산업 현장 과제, 업종별 특수성 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관련 ^⑤기업·기술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
- o 이와 함께, 한국생산성본부(KPC) 등과 협업하여 올해 업종별 전문 성을 보유한 **디지털 전환 현장 전문인력(400명)**과, 기업별 C-레벨 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할 **변화인재(Change Agent, 100명)** 양성도 착수할 것임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별도 홈페이지(www.idx.or.kr)
 개설, 전문 상담사 운영(1800-52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함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7천개 이상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그동안 우리 주력산업이 가치사슬로 연 결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성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 내, 업 종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우리 경제, 산업이 WHO 발족 이래 세 번째 세계적 감염병 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5G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그리고 케이(K)-방역을 이끌어내는 국민, 기업인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디지털 시대 산업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함